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4월 27일(금) ..(음력 3월 12일).. Пятница 27 апреля 2018 г. № 16(11678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0일(금)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사할린주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사할린주정부(주교 육부)·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국립대 주최 아래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5월 1일에 시민행진, 집회, 공연 등 펼쳐져

5월 1일은 봄과 노동의 날이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정례 시민들의 행진, 집회, 공연 등 명절 행사들이 펼쳐진다. 노동조합들이 주최하고 사할린주 정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의 협조로 진행되는 시민행진은 이번에도 전과 같이 두 장소(콤무니스트체스키 프로젝트와 체홉거리 교차점, 레닌거리와 포포위츠 거리 교차점)에서 10시30분에 시작되어 11시에 레닌광장에서 합류 후 집회가 개최된다.

한편 올해는 5월 1일 봄과 노동의 날이 화요일이어서 4월 28일(토)을 근무일로 하고 4월 30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했다. 또한 5월 2일(1월 7일 공휴일을 당겨 대체)도 휴일로 지정하여 4월 29일(일)부터 5월 2일까지 공휴일로 보내게 된다.

### 사할린세관, 20주년 기념

지난 24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사할린 세관 2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이날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 세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기장을 수여, 포상했다. 사할린 세관 20주년을 맞아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부수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사할린주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현재 사할린주 세관은 유즈노사할린스크·코르사코브·홉스크·유즈노쿠릴스크에 세관통관소가 있고 현재 457명이 근무하고 있다.

20년간 사할린세관은 약 7만 척의 선박, 항공기 3만여 대, 350만 명의 승객을 통과시켰다. 세관은 연방예산에 700여억 루블리를 납부했다. 수입 교역량은 780만 톤(300억 달러), 수출 교역량은 1억9200만 톤(838억 달러)에 달했다.

### 사할린팀, 텔피게임에서 메달 3개와 특상 하나 따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17회 텔피청소년게임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러시아 70개 지역에서 창조력을 발휘할 10세부터 25세까지 연령의 유, 청소년 18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댄스, 보컬, 연극, 요리 등 총 31개 부문에서 경쟁을 치렀다.

사할린주에서는 약 80명의 청소년들이 대표하여 참가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예술학교의 두 팀이 메달을 따냈다. 같은 학교의 러시아민족과 <벨리에 로시>민족앙상블(민요단, 지도:엘레나 알레쉬코)은 <민요>부문에서 은메달, 한민족예술문화과의 <도라지>무용단(지도:김 예브게니아)은 <민족춤>부문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사할린주 예술전문학교 학생 세르게이 안토노브는 발라라이카 연주로 <민속악기 연주>부문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우글레고르스크 <가르모니아>예술학교 박 다리야 어린 미술가는 <주제 실현에 기술성공>특별상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도라지>무용단의 김 예브게니아 무용교사는 “<도라지> 단원들이 10-11세의 여학생들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발표를 잘해주어 메달을 따내서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국 행정안전부 대표단, 한인 1세 유골 봉환·한인 기록물 수집 문제로 사할린 정부 협조 요청

지난 21일(토) 한국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표단(단장 대항쟁기피해조사연구과 한중구 과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한국 정부가 사할린 동포1세 유골봉환 사업과 한인 기록물 수집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현지 정부와 한인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있었다.



23일(월) 행안부는 사할린주 정부에서 주 경제개발부 이리나 팔라예와 차관, 러시아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사할린주 역사고문서보관소 세르게이 차로츠킨 소장, 주 주민등록국 아나스타시야 프리호츠크 전문가 등과 만났다.

러·한 정부가 협의하여 유골봉환과 한인 기록물 수집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 정부 측에서도 이 실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인사를 나눈 후 바로 실제적 문제로 들어갔다. 한국 행정안전부 한중구 과장은 함께 온 한인 유골봉환업무 담당자 문은영 팀장, 신재은 주무관, 그리고 한인 기록물 수집을 담당하는 김영숙 팀장을 소개했다.

한 과장은 “한국 정부가 금년에도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한인 유골 15위 내외를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습하여 봉환할 계획”이라며 “현재 묘지가 확인된 것

은 총 19기이며, 그중에 묘지 3기는 배우자가 함께 매장되어 있어 봉환 대상 유해는 총 22위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인 기록물 확보에 주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사할린 역사고문서보관소에는 한인 강제 징용에 대한 정보가 따로 보관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법에 따라 여러 문서를 통해 연구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한국대표단은 올해 유골봉환문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코르사코브·홉스크·네벨스크·돌린스크·마카로브·우글레고르스크 행정부 관계자, 주한인회·아시아나 항공 사할린 지점 등 지도부와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에서 유골봉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이 돕고 있다.

한국대표단은 28일(토)에 귀국할 예정이 다. **(취재: 배순신 기자)**

##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열려

4월 27일(금)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세 번째이자 10년 6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파란 많은 시간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한자리에 앉아 식사와 회담을 하게 된다.

세계의 이목과 각국 언론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는 국내 기자단과 세계 기자들에게(3천명 이상) 브리핑할 프레스 센터도 개소했다.

이번 회담의 슬로건은 '평화와 새로운 시작'이다. 4월 내내 실무회담을 비롯해 이번 주에는 회담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회담 참가 인사는 국방, 안보, 외교 분야의 인사들로만 꾸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제사회와 연결된 외교적 현안이 핵심 의제이다. 이전의 회담과는 달리 현실적 당면 문제를 타결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남북 간 직통전화도 설치되고 참 멀고 멀었던 평양과 서울은 그렇게 이어지고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이나 6월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국 언론매체에서)**

<p><b>새고려신문</b></p>	<p><b>2018년 신문주문</b></p>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b>(본사 편집부)</b></p>		

지난 4월 18일 갑자기 흠스 크한인회에서 연락이 왔다.

'프라우다 마을에 계시는 신해 분 할머니께서 오늘 90세가 되셨습니다. 어르신이 90해를 기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오늘 할머니 댁을 동네 친구들과 온 가족이 찾아갔습니다.'라고 흠스 크한인회 회원이며 주한인회 감사인 최연자 씨가 전화를 전했다.

이날 흠스 크한인회에서도 주한인회와 함께 청소기와 다리미를 선물했다고 한다.

필자는 21일(토)에 흠스 크 구역 프라우다 마을을 찾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흠스 크까지 차로 1시간 반, 흠스 크에서 프라우다까지 약 15분.

신해분 할머니는 2세대 바라크집에서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막내 딸은 한국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나가 있다.

한인회에서 연락을 받고 네 웰스크에서 있는 딸 딸 나제즈다(이옥순) 씨가 마당 대문 앞으로 마중을 나왔다.

집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신해분 할머니는 네 웰스크에서 온 셋째 딸 이리나(정순), 그리고 동네 친구이자 신 할머니의 남편과 동생이라서 자녀들이 '고모'라고 부르는 이페임(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새고려신문 2018년 1월 19일호 게재) 할머니가 있었다. 인사를 반가이 나누고 서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라도 출신인 신해분 할머니는 4살 때 아버지와 함께 북으로 넘어갔다. 북조선에서는 함경북도 남양에서 살았다. 신 할머니는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

신 할머니가 사할린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첫 아이(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 90해를 맞이한 신해분 할머니

## '나는 통일을 기다린다. 통일 되면 제일 먼저 고향 전라도에 갈 겁니다'



남편이 소련 사할린에 파견노동자로 계약하여 가게 된 것이다. 남편 배웅하러 나갔다가 뭘 보여준다 해서 신 할머니가 사할린으로 가는 노무자 4천 명이 탄 배에 올라탔다고 했다. 구경하는 동안에 순간, 선박 사다리가 치워지고, 그렇게 어미 품에 안긴 딸과 배에 탄 남편과 함께 먼 길을 떠났다. 정월에 태어난 딸과 함께 5월에 사할린 네 웰스크항에 도착했다. 당장 기저귀가 없어 속치마를 찢어 만들었다고 했다. 그후로 71년이 흘러갔다.

"왔다가 인차 가는 게 3년 계약이었는데, 19세에 와서 지금 90 됐네." 할머니는 웃었다. 계약으로 남편은 어장에서 일했다. 노동계약이 끝났지만 가족은 사할린에 남기로 했다. 이곳 사할린에서 신 할머니는 아이 6명을 더 낳았다.

"나는 딸 너이, 아들 서이. 그런데 아들 하나는 작년 12월에 잃어버렸어요. 날 버리고 가서...

67세에 어머니를 버리고 가서...' 신 할머니이 하는 말에 이페임 할머니는 '하늘 나라로 가셨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할머니는 90 세 생신을 안 하려고 한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은 좀 살아났다."고 한다.

'내가 외롭게 큰 사람이요. 난 어머니란 걸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오. 내 어머니가 날 낳고 석달 만에 돌아갔어요. 나도 고아로 이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렇게 큰 사람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낳아서 내 힘으로 키워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신 할머니는 가족사를 털어놓았다.

그의 남편은 1983년에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직장에서 일했다. 프라우다 통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막노동일을 많이 하고 통을 싣고 올리기도 했다.

할머니의 체력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다. 키가 자그마하고 여러모로 허약하게 생겼다. 동포 1세대는 정말 부지런하고 자식들을 위해 못하는 게 없다.

- *그날 그날 살았지... 전에는 아이들이 자랄 때는 몸도 약하지 '저것들을 언제 다 키워놓고 죽겠는가? 혹시 또 고달플 때 있겠지? 그럼 또 '야, 내가 죽으면 자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고모도 그렇지? 그냥 걱정 했지.*

에너지가 많은 할머니는 일없이 하루를 못 보낸다고 한다. 올 겨울은 눈이 상당히 많이 왔길래 눈 치우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일전에는 막내딸이

해변가에 있는 밭을 3일간 찾아 날아온 돌들을 치웠다고 한다.

"한번 우리 집(네 웰스크)에 놀라왔는데 그 당시 우리가 큰 집(코테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그 큰 집 바닥 전체를 닦고 있었습니. 혼내긴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요."라고 딸 딸이 걱정스런 눈길로 말했다.

신 할머니는 농담을 잘 하신다. "아들, 딸들이 잘 찾아오는가?"란 필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오지도 않소. 오늘 오라고 하니 오지.' 대답하자 집안에는 또다시 웃음 소리가 났다.

이페임 어르신은 "잘 찾아옵니다."라며 진지하게 대신 대답했다.

신 할머니는 "그냥 전화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하지. 전화 받으면 '살았구나' 하지."하고 "잘 하요. 잘 하요. 그저 잘 해도 못한다 자꾸 욕하지." 이어 말했다.

사실 딸, 아들도 잘 해주고, 사위, 며느리도 잘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손주사위인 전 네 웰스크 시장 김 블라지미르를 많이 자랑스러워 한다.

할머니에게는 손자손녀 11명이 있고 증손자 12명, 그리고 현손자 2명이나 있다. 정말 할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재산이다. 딸, 아들들은 주로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상업 전문가, 요리사, 운전기사 등으로 일해왔고 손자들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했다고 한다. 어떤 손자는 3번째 대학원을 마치고 있다고 덧붙이셨다.

할머니는 노래를 잘한다. 그는 특히 흘러간 노래를 좋아한다. 2016년에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사할린 예선에 참가했는데 그때 반주 없이 한이 많이 땀힌 노래를 한 것이 떠올랐다.

우리가 만난 날에도 몇 곡을 들려주기도 했다.

신해분 할머니는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다. 80년대부터 공화국에 관광코스가 생겨 거의 해마다 조국을 찾는다. 최근 2년은 가지 못했다.

"내 혼자 조선사람이고 이 사람들(자녀-기자주.)은 다 러시아사람들이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자녀들 모두는 러시아 국적이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북쪽에 동생들(이북동생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란다.

'할머니 조선공화국 국민이라서 한국은 안 가보셨죠?'란 필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안 가봤죠. 꼭 갈 때가 있겠지. 나는 통일을 기다립니다. 저기 봐요(화분에 꽂혀있는 한국 깃발과 조선공화국 깃발을 가리키면서). 한국기, 조국기 다 있다 말아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양 깃발 들고 한국에 나갈 겁니다. 전라도 고향에 갈 겁니다.'라고 했다.

신해분 어르신은 최근에 케 이블채널이 있는 이페임 할머니 댁에 가서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즐긴다. 요즘은 무엇보다도 4월 27일 관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신 할머니의 통일에 대한 기대만큼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

(취재: 배순신 기자)

## 이모저모

### 사할린 주민들, 전승절을 기념하여 40킬로미터 코스의 자전거 경주

사할린에서 전승절을 기념하는 공식 자전거 경주가 3번째로 진행된다. 5월 5일에 참가자들은 코르사코브-유즈노사할린스크 구간 40킬로미터의 코스를 달리게 된다. 주최 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다츠노에 마을을 중간 휴게소로 정하고 자전거 경주는 11시에 항구도시에서 출발하게 된다. 자전거 경주자들은 적정 속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교통안전 경찰차와 구급차량이 수반하여 따라간다. 중간에 낙오된 경주자는 이송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도록 할 예정이다.

자전거 경기는 13:30에 주중양도시 슬라와 광장에서 잠시 집회를 갖고 참가자들이 성화에 헌화함으로 마무리된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사전신청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를 꼭 표기해야 한다. 2018년 5월3일까지 probeg@bike.sakhalin.ru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 제출, 또는 bike.sakhalin.ru/services/register.php 사이트에서 신청서 등록이 가능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위해서는 코르사코브행 이송버스가 아침 9시 승리광장에서 출발한다. 경기 전 경주 참가자들은 반드시 자전거 점검을 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Дню Победы сахалинцы посвятят 40-километровый велопробег

Официальный пробег,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Победы, пройдет третий раз на Сахалине. Участники покорят 5 мая 40 км трассы из Корсак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лонна стартует из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в 11:00, остановк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в селе Дачном. Велосипедисты будут двигаться с умеренной скоростью. Их сопровождают автомобиль

ГИБДД и карета скорой помощи. Кто не сможет финишировать на двухколесном транспорте, остаток пути продолжат на автобусах сопровождения.

Завершением велопробега станет короткий митинг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13:30. Участники возложат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Участники обязаны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и указать имя, фамилию, дату рождения,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телефон. Необходимо до 3 мая 2018 года отправить заявку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probeg@bike.sakhalin.ru или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на сайте bike.sakhalin.ru/services/register.php.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транспорт в Корсаков. Он отправится от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09:00. У участников пробега должен быть исправный велосипед и шле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의 아이들이 노래하다> 축제에 학생 350명 이상 모여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소년예술헌장회관에서 <러시아 아이들이 노래하다> 전 러시아 학생 합창축제의 지역단계가 진행되었다. 16개의 우수 합창단들이 다음 단계로의 진출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모여들었다. 사할린의 7개 구역에서 온 학생들은 350명이 넘었다.

4월 19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합창단 선발 경연이 열렸고 4월 20일에는 대규모 갈라 콘서트와 우승자 시상식으로 축제의 막을 내렸다. 무대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 흠스 크와 토마리에서 온 우수 합창단들이 출연했다. 축제 기간 동안 사할린 합창단들은 민요와 전통적인 노래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다.

<전통적인 노래> 부문에서 포로나이스크 제1호 학교 (고학년 합창단, 지도: 엘레나 소콜로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호 김나지아(유·청소년 합창단, 지도: 엘레나와 그레고리 루마니체비, 단장: 이리나 리티비노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요> 부문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 예술

창작회관의 민요 앙상블 '투예숙' (지도: 줄리아 베가, 단장: 알렉산드르 사벨란)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고 교육부 홍보실 전했다.

### Фестиваль "Поют дети России" собр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ее 350 школьников

С 19 по 20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оше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школьных хоров "Поют дети России". 16 лучш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иехали побороться за шанс пройти на следующи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Всего более 350 школьников из 7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19 апреля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роводился отборочный тур.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20 апреля большим гала-концертом и награждением победителей. На сцену вышли лучш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Углегорска, Поронайска, Холмска и Томари.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е хор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народном и академическом пении.

Абсолют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 номинации "Академическое пение" стали: хор школы №1 Поронайска (старшая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руководитель Елена Соколова и академический хор гимназии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ладшая и средняя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руководители Елена и Георгий Румянцевы, концертмейстер Ирина Литвинова.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ое пение" сильнейшим стал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Туесок"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уководитель Юлия Бега, концертмейстер Александр Савелья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образования.

### 스포츠 박물관 설립자 사할린 주민들에게서 전시품 기증 요청

사할린주에 스포츠 박물관 설립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을 통해 사할린의 선수들과 우승을 이룬 스포츠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도록 할 참이다. (8면에 계속)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민족 운동의 전통> 주제로 발표

시 낭독 부문에서 8세의 2학년 초급생, 발표 부문에서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는 여학생 우수

지난 20일(금)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기 사할린주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정부(주교육부)·블라디보스토크주재 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민족 운동의 전통>이었다. 주최측은 올해 한국 평창에서 동계



국총영사관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국립대(어문·역사·동양학대학) 주최로 진행된 이 대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크라스노고르스크, 돌린스구역 포크롭카촌 학교 학생 24명이 참가했다.

이날 학생들을 환영한 사할린국립대 스웨틀라나 바피쉬니코와 부총장은 "우리 국립대가 지역의 재능 청소년들이 또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또한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선생이 되어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와 같은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더욱더 기쁘다."고 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엘레나 만칠리나 수석 교육설계사는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좋은 축제"라며 "이 대회의 우승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말하기 대회에도 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표명을 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성공을 기원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은 크라스노고르스크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들을 따뜻이 환영하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떨지 않고 이번 대회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

올림픽이 있었기에 스포츠 관련 주제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경연대회는 시 낭독 부문과 발표 부문으로 나뉘었다. 한국어 초급생들은 <한국 민속놀이>란 시를 외우고 읊어야 했다.

사할린주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스트로브(섬)·동양미술센터 안수학관장,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외국어과 코르네예와 인나 과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학생들의 발음과 억양, 태도 등을 고려해 심사를 했다. 이 부문에서 학생 20명이 출전했다. 경쟁이 치열하여 긴장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거의 모두 준비를 잘 해온 편이었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 낭독> 부문

1등 - 김 웨로니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급나지아, 2학년 (지도교사: 스미르노와 알렉산드라)

2등 - 고르피첸코 블라지슬라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30중학교, 7학년 (지도교사: 안학용)

3등 - 김 비아나,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을 중학교, 9학년 (지도교사: 김련화).

<발표 부문>에서는 학생 4명만이 출전했는데 이들은 스포츠 관련한 주제 범위에서 자유로운

소재로 발표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발표 내용, 사용하는 문법구조, 표현력, 태도와 프레젠테이션 부분 등을 고려해야 했다. 발표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좋았다.

전에 한국어를 선생에게서 배운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홈스크 <나체즈다(소망)>리체이 11학년생인 모젠코와 알리나가 1등을 차지했다. 2등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9학년생의 레닝 울리야(한국어 교사이 왜체슬라브)에게 주어졌고 3등은 코르사코브 제4중학교 11학년생 김 크세니야가 차지했다.

이날 모든 참가자들은 사할린주교육부의 감사장과 교육부와 사할린한국교육원이 준비한 상품을 받았다. 주교육부는 심사위원들을 비롯해 대회를 준비한 사할린국립대 교수와 학생을 준비시키고 출전하도록 한 한국어 채택학교와 한글학교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내년 세계한상대회,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

내년 세계한상대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은 20일 미국 달라스에서 세계한상대회 제32차 운영위원회 및 제33차 리딩CEO 포럼을 열고 2019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여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한인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 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한민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한민족 최대 경제 컨벤션이다.

한인 경제단체장과 역대 대회장 등 30여 명의 운영위원들은 대회 유치 신청서를 단독 제출한 여수시의 개최 계획과 필요 제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차기 대회 개최지와 일정을 10월 15~17일로 최종 확정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한상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태안 꽃축제 추진위, 영구 귀국 사할린 동포 500명 초청 위문

태안 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한상률)는 20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에서 열린 '2018 태안 세계 튜립꽃축제 개막식'에서 러시아 사할린 영구 귀국자 500명을 초청해 위문 공연을 펼쳤다.

경기도 파주·안산, 인천, 충청북도 음성 등 전국 10여 곳에서 온 이들은 축제 관람 후 가수 이혜미, 수와진의 공연을 관람했다.

한인 돕기에 앞장서온 이혜미 씨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자신의 히트곡과 옛노래 메들리로 한인들의 향수를 달랬고, 수와진도 히트곡 '파초' '영원히 내게' 등을 선사했다.

축제 실무를 맡은 강항식 네이처농업회사 법인 대표는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됐다가 남은 한인과 그 후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려고 초청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회장은 "대부분 70~80대인 영구 귀국자들은 거동이 불편한데 버스까지 제공하며 초청해 줘 감사하다"며 "꽃내음도 맡고 흥겨운 노래도 들으니 한층 젊어진 느낌"이라고 고마워했다.

위원회는 공연 후 사할린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방송을 하며 모국의 얼과 문화를 전하는 우리말방송국과 사할린한인회에 각각 1천500만 원과 500만 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창면, 사할린 영주귀국자회 깨끗한 아산만들기 동참, 눈길

아산시 신창면에 영주 귀국해 정착한 사할린동포회(회장 백기부) 회원들이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대청소에 팔을 걷었다.



회원 40여 명은 지난 18일, 소화마을 아파트 주변 대청소에 참여해 도로변, 공원, 아파트 단지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을 실시했다.

김정식 신창면장은 "매번 신창면을 위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동참해 주시는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아산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결활동에 참여한 사할린영주귀국자 정정란 부녀회장은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에도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운양신문)

민속 전통 놀이에 대한 질문지에 120여명 답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0일(금) 오후 사할린국립대학에서 약 120명의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학 경시대회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 전통 민속놀이였다. 1시간 동안 이들은 민속 놀이에 관한 질문에 응답해야 했다.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교수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구역,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크라스노고르스크, 홈스크 학교 학생들과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 참여했고 한국 문화 등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사할린주한인회가 추진한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프로젝트 일환으로 학생들이 경시대회의 2단계로 활동교실이 인기가 많았다. 학생들

은 한지로 그릇을 만들고 부채와 형겔지갑에 색칠을 하는 기회도 가졌다.

공예활동을 위한 자료 구입에는 사할린국립대 언어·역사·동양학 임 엘위라 학장이 직접 나서고 한지공예활동도 지도했다.

자신이 한 작품을 가져갈 수 있었으니 학생들이 무엇보다 좋아했다.

한국학경시대회는 전통적으로 사할린국립대와 사할린주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суд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С недельным визитом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3 апреля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во главе с начальником отдела исследования жертв периода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Хан Джунг Гу встретились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ой Палаевой, гд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возвращения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а также помощи в изучении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дел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ственно завезенных японцами на остров в период Карафутто. На встреч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директор ГИСО Сергей Чарочкин и др.

В 2013 году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содействии в передаче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у которых есть родственники в Корею. В течение 5-ти лет было перезахоронено 55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15-ти останков.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о в период с 8 по 13 сентября.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обещана вся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важного проекта.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делегац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бывала в городах 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где будут произведены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встретила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этих городов и районов. В их числе Анива, Холмск, Невельск, Корсаков, Долинск, Макаров, Углегор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ш.корр.)**

## Концерт дружбы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0 апреля 2018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дружественны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нцерт "Навстречу Весне-2018".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организова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ей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мена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ля участия в этом концерте впервые с гастролями прибывает джазовый коллектив г. Сеула "JAZZY BRATZ", который исполняет не только джаз с вокалом и импровизациями на различ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но и блистает современными танцами Bedor dance team, демонстрируя на сцене яркое зрелище. В концерте примет также участие музыкант Им Дюн Су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соль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игры на саксофоне, певица Ким Ден С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песнями и танцем. Также покажет своё мастерство Сахалинский Ансамбль дух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Island Brass Band"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Алексей Кононенко).

Изюминку в программу внесёт подростковая па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луба "Талио", чемпионы города и области по спортивным бальным танцам брат с сестрой Ким Богдан и Ким Юн И.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что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инесёт зрителям наслаждение от ярких, красоч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номеров талантлив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и Ольга**

## В СахГУ определили лучших знато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20 апреля в малом зал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корпу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ошел очередно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н проводится СахГУ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 Мы рады, чт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новится площадкой для встреч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а проректор СахГУ Светлана Барышникова. — Многие наши выпускники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идут по своему призванию работать в школы и уже сами приводят сюда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учеников. Этот конкурс важен как для молодежи,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так и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Слова приветствия прозвучали из уст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Ким Джу Хвана и ведущего консульта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ы Манчилюной. Они пожелали участникам состязания успехов и выступить без волнения.

Конкурс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шили приурочить к прошедшей XXIII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Поэтому школьникам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пришлось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кругозор

знаний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ях в спорте. В одной из двух номинаций участники исполнял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про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игры, а во второй им предстояло не только написать сочинение на спортивную тему, но и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жюри.

Стихотворение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играх исполнили 20 школьников из Красногорска, Холм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и села Покровк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Лучшими в номинации «стихотворение» стали:

• 1 место — Ким Вероника Витальевна, гимназия №2, 2-ой клас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мирнова Александра

• 2 место — Горпинченко Владислава, СОШ №30, 7-ой клас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Ан Хан Ен;

• 3 место — Ким Биана, СОШ села Красногорск, 9-ый класс,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им Рен Хва.

В номинации «сочинени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всего 4 человека, но все они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в этой номинации Моженкова Алина учи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 подготовила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нкурсе без чьей-либо помощи.

Лучшими в номинации «сочинение (спич)» стали:

• 1 место — Моженкова Алина, лицей "Надежда", 11 класс (Холмск)



• 2 место — Ленинг Юлия,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9-ый класс, преподаватель Ли Вячеслав;

3 место — Ким Ксения, СОШ №4 (Корсаков), 11-ый класс,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им Гил Су.

В этот же день около 120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 на тему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игры". Здесь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исьменно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грами. Второй частью олимпиады стало проведение мастер-классов. Ребята с увлечением занимались изготовлением сувениров из корейской бумаги ханджи, росписью по ткани и украшением вееро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олимпиады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 стали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лимпиада прошла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гран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Наш.корр.)**

## Коллектив «Доради» завоевал бронзу на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ах

25 апрел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завершились Семнадцатые молодежные Дельфийские игры. Своё мастерство показали свыше 1800 творческих ребят из 7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25 лет. Лучших определили в 31 номинации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танцевальные, вокальные, театральные, цирковые номера и даже выступления ди-джее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грах представили почти 80 человек.

На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ах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три медали и один спецдиплом.

Второе место у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Белые росы"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руководитель Елена Алешко) Серебро также на счету балалаечника Сергея Антонова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ю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ый танец" отмечен коллектив "Дорад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м дипломом была отмечена наша юная художница. Жюри конкурса наградило Дарью Пак из углегор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Гармония" — "За мастерство реализации замысла".

Что касается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Доради", то в финальном туре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ы девочки исполнили два танца — "Нынсубодыль" и "Радостный день". В корейском танцевальном ансамбле собраны одни из самых юных участниц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ы. Маленьким танцовщицам всего по 10-11 лет. Тем не менее на сцене они выглядели



уверенно и исполнили свои номера без особых нареканий, сообщили в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м центре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 Для нашей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никогда большой команды это несомненный успех,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областного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Елена Манойленко. — Ведь завоевать медаль в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ах — все равно что оказаться на пьедестале почёта на Олимпиаде. В Приморье нашим детям конкуренцию составили сильнейшие танцор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о в итоге бронза оказалась у нас.

Вс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девочки посвящали репетициям. Даже когда заканчивалось время, которое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водили "Доради" на сцене, занятия продолжались в гостинице. Педагоги со своими учениками оттачивали отдельные элементы танцевальных номер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программу выступления сахалино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холле здания.

— В мое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карьере это уже вторая медаль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 — рассказа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Доради" Евгения Ким. — Но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до этого было серебро, нынешняя бронза принесла много радостных переживаний. Ведь в этот раз мы ее завоевали с такими маленькими и талантливыми девочками. Признаюсь, что с таким возрастом работать непросто. Для них надо быть не только педагогом, но и психологом, а иногда даже мамой.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27 апреля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23 апреля в павильоне Тхонильгак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пограничного пункта Пханмунчж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га и Севера провели третий раунд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саммиту. Они окончательно согласовали протокольные вопросы, включая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и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том, что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Ему будет предшествовать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иветствия, а после саммита состоится совместный ужи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мментируя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По ег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журналист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 доступ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части пропускного пункта Пханмунчжом - Пханмунгаку. Именно оттуда начнется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прибыт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приветствует решение Пхеньяна о прекращении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испытаний

Решение Пхеньяна о прекращении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испытаний, а также закрытии яд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огресс в дел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Это решение, которого ждал весь мир, - говорится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субботу заявле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нём такж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решение Пхеньяна создаст благодатную почву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иложи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дстояща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а и Ким Чон Ына «проложила путь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прочному мир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екратил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вещание на Север

С 00 часов 23 апр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екратил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вещание на Север, осуществлявшееся через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и в приграничной зон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отметив, чт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целях поддержания мирной атмосферы и сглаживания воен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первые данное вещание началось с 1 мая 1963 года. После этого он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кращалось и вновь возобновлялось из-за перепадов в состоя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2015 году страны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агитационного вещания на границе, однако в январе 2016 года оно возобновилось в ответ на четвёртое испыта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 За первые 20 дней апр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увеличился на 8,3%

За первые 20 дней апр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увеличился на 8,3%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л 32 млрд 820 млн долларов. Объём дневного экспорта составил в среднем 2 млрд 5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Тамож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РК, рост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увеличение продаж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на 49,5%, продукции нефтехимии на 37,2%, автомобилей на 3,8%. При этом экспорт морских судов сократился на 57,6%, а средств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 на 34,8. Постав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в Китай возросли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на 23,8%, в США - на 1,3%, в Японию - на 28%. При этом поставки в страны Евросоюза сократились на 30%, а во Вьетнам - на 12,4%. Импорт вырос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20,8% до 30 млрд 870 млн долларов, а про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оставил 1 млрд 940 млн долларов.

## Возобновился рост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щающих РК

Числ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в марте РК, увеличилась на 10,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Рост произошёл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течение 12 предыдущих месяцев наблюдалось сокращение.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 марте в страну въеха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 млн 370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этом численность граждан Китая составила 403.413 человек, что на 11,8%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Отмечен также рост числа туристов из Гонконга, Тайваня и Вьетнама.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мечен рост числен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сетивших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Она составила в марте 2 млн 250 тыс.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6,1%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RKI)

##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юрпризов не ждем

Наканун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мы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попросили ведущи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экспертов-корееведов рассказать, каковы ожидания от предстоящей встреч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 их странах, а также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Мы попросили наших авторов оценить перспективы встречи в верхах и ее возмо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АТР.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азиат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РАН, профессор МГИМО,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ланник (в отставке):

Ожидания у обеих сторон довольно большие. Это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которого ждали больше десятилетия.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возобнов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Южной, добиться смягчения санкций, попытаться разобщить США и РК, предложив Сеулу выгодные условия мир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и оттянуть решение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Для Мун Чжэ Ина (в том числе по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очень важно налад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ом и выполнить предвыборные обещания, снизить военную угрозу и разрядить обстановку.

При этом южнокорейцы не могут уйти от постановки ядерного вопроса — хотя и решить они его не в состоянии, поскольку Север согласен на предметный разговор по этой теме только с тем, кто готов предоставить какие-то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 то есть с США. Южане такие гарантии предоставить неспособны.

Но недавняя инициатива Ким Чон Ына о прекращени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и испытаний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я надеюсь,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епенно этот раздражитель устранить. Сегодня южане получили повод заявить, что Ким Чон Ын поддался их совместному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давлению (хотя на деле это не так), а значит вопрос 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успешно решается и его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 ходе саммита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Не исключаю, что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акцентирует внимание именно на этом. Конечн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 этой встречи в верхах ожидать не стоит, поскольку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совершенно 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Хотя какие-то слова будут сказаны — декларации о том, что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олжна быть и будет решена.

Главное, что возможные расхождения по ядерной теме, если Север и Юг не смогут их «смиривать», рискуют сорвать главное событие — встречу Кима с Трампом. Американцы будут стара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дож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руками южан. Насторож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американцев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саммиту остается, хотя видимо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США оказывать опасаются. Вашингтон озабочен тем, что межкорейское примирение выбьет козыри из рук сторонников усиления давления на «диктаторский режим», ослабит мотивировку Сеула к выполнению команд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на этот счет, сократит предлоги для наращиван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лияния в регионе.

В регионе же в целом ожидания также довольно позитивные. Китай восстановил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Ким Чон Ын заручился его поддержкой и вроде бы готов «отчитываться». И теперь Китай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то, что саммит снизит военную угрозу — в итоге можно будет поставить вопрос о ненаращивани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зможно, даже всплывет тема вывода оттуда 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ТНААД, коль скор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дет на сокращение своих ракетных вооружений. Фактически,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ной политике Пхеньяна, Китай «взял под опеку» КНДР, и теперь все партнеры должны учитывать позиции КНР, которые, казалось бы, ослабили из-за предыдущего охлажд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янами. Нельзя не заметить, что влияние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ослабло, так как она больше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спонсора» КНДР — а такое мнение бы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в период этого охлаждения.

Япония крайне озабочена сближением Севера и Юга — там вообще очень нервно относятся к «корейскому фактору», опасаясь, что объединение сил двух Корей составит угрозу для страны. К тому же японцы понимают, что «их» вопросов — проблем с ракетами средней и меньшей дальности и похищений японских граждан — не решит ни замирение полуострова, ни даже потенциальная ядерна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между КНДР и США.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России, то она целиком поддерживает все происходящее и надеется на то, что все про-

цессы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и вокруг него удастся перевести в мирное переговорное русло. Мы не перестаем напоминать о том, что события фактически развиваю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ой «дорожной картой», которую мы с китайцами предложили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йчас мы уже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этой карты — двух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Более того, Ким Чон Ын, работая на опережение, переходит к следующему этапу, за которым маячит уже шестисторонний формат... И хотя эту карту вроде бы никто не принимал всерьез, фактически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по ней,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она логична.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эту логику оценил и использовал Пхеньян, пусть формально он и не сослался на «источник вдохновения».

Главным итогом саммита станет установление личного контакта и появление перспектив постоянного общения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двух стран, то есть начала широкого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Возможно, стороны обменяются символическими жестами в виде возврата людей, задержанных на Севере и на Юге; возобновления туризма в Алмазные горы и так далее.

В целом же, я надеюсь, что ожидания обеих сторон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оправдаются. Думаю, что будут подтвержден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ые на предыдущих саммитах — в 2000 и 2007 годах.

Однако возможны и прорывы. Очевидно, южнокорейцы надеются получить какой-то значимый документ, подводящий итог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хотя такой документ, опять-таки, может быть подписан только с участи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США... Но принятие каких-то формальных соглашений, декларирующих, что две Кореи переходят к мирным контактам и к отношения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что они подводят черту под военными решениями, предсказать можно. Документы аналогич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уже подписывалис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истор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двух Корей. Дальше все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стороны сумеют дать такому документу реальное наполнение.

Объективно говоря,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сейчас сняты. Либераль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отличие от своих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не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скорый коллапс» КНДР и не торопит объединение на своих условиях. Северо-корейцы это ценят и перестали угрожать Южной Корее, согласны на определенные меры доверия. Сеулу удалось уговорить Вашингтон снизить масштабы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отвести их южнее, сделать менее агрессивными. Иными словами, если бы не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то северные и южные корейцы вполне могли бы хорошо договориться и начать сотрудничать как минимум в масштабах не меньших, чем в период «либерального десятилетия» начала века.

Но пока не стоит ждать отмены санкций — американцы жестко настаивают на том, что до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их отменять не надо; наоборот — надо усиливать, продолжа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Конечно, это запросная позиция, но американцы не дадут южнокорейцам отменить что-то даже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Тем более, что основные санкции приняты Сов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только внести предложение в СБ ООН об отмене или смягчении таких санкций. Но там его заветируют США — они просто не допустят, чтобы их союзник действовал наперекор им.

Какая-то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вестка на саммите будет. Возможен, в частности, разговор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Кэсо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хотя это вряд ли — слишком сильно противятся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Но шанс на то, что в случае замир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замороженные ране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возобновлены и даже расширены, а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России — это существенный элемент нашего «поворота на Восток» и вхождения в АТР.

Так что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происходящее Россию очень устраивает. Конечно, сохраняются опас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орядка. Прежде всего дело в той роли, которую сейчас в регионе играют США. По сути, американцы держат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 фалды, выступая против кардинальной разрядки ситуаци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под предлогом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Более того, очаг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близи границ с Китаем, очень выгоден дл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ланов Вашингтон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наращиванию своего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в регионе. Сдерживание Китая — главн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геополитическая задач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 корейский предлог для этого очень удобен.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 7)

## За три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коло 1 миллиона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2018 году строительная отрасль должна будет сдать несколько социально важных объектов, возводимых за счет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 такая задача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детские сады, новые школы,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жильё.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граждан продолжится масштабн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лощадей и скверов,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регион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расселить более 1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и непригодного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возводятся два десятка новостроек.

В 2018 году в поселке Смирных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ожарную часть. В Долинске возводится средняя школа на 800 мест, в Холмске – мастерские МБОУ СОШ № 9.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дан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школ-детсадов в селах Тунгор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работает почти 1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количеству занятых она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в экономике региона, уступая только торговле и транспорту. Объем работ, выполненный работниками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ы, в 2017 году составил 66,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От предприятий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ый бюджет области поступило налоговых доходов на сумму 5,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наметило ряд мер по поддержке предприятий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Среди них – обеспечение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бюджета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планируемых для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для семей – участников жилищной программы; максимальное сокращение сроков п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ов на оплату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Только их реализация поможет снизить стоимость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ового жилья, увеличить спрос на него, ускорить оборот финансовых ресурсов и качество подготовки документов на оплату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 В поездку по Сахалину отправился киномотобиль

Уникальный передвижной кинотеатр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выехал в районы острова. До 2 мая он побывает в шест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елах Онор и Побед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округа, поселке Вахрушев Поронайского округа, селе Новом Макаровского округа, городах Макаров и Корсаков. Сахалинцам покажут новинки мирового 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опроката.

Киномотобиль едет в т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острова, где у жителей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мотре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кино с хорошим разрешением, – рассказал о цели тура администратор мобильного кинотеатра Алексей Гиза. –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островитяне охотно будут посещать киносеансы.

В программу показов вошли ленты, недавно вышедшие в прокат. Среди них – «Тихоокеанский рубеж-2», «Гоголь. Вий», «Рэмпейдж», «Первому игроку приготовиться», а также российская спортивная драма «Тренер» с Данилой Козловски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Для зрителей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а подготовлена мультиплик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тоимость сеансов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высокая – в селах до 200 рублей для взрослых и 100 – для детей, в городе – до 250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ому киномотобилу нет аналогов в России. Прибыв в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он всего за полчаса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в современный зрительный зал, где могут разместиться 67 зрителей. Внутри – все как в обычном кинотеатре. Удобные кресла, между ними – широкие проходы. Для комфорт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зрителей установлены системы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вентиляции, отопления, а также пожаротушения.

Звуковое и видеооборудование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подобное тому, что работает, к примеру,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Комсомолец». Специальный «серебряный» экран Harkness Hall Clarus 140 не деполяризует свет,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фильмов в 3D-формате. Изображение на него выводит цифровой проектор DLP Cinema Christie Solaria One. Стены отдела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акустическими панелями с высоким звукопоглощающим эффектом. Они изготовлены из природного волокна и пропитаны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м средством. Звук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Dolby.

Впервые киномотобиль был опробован на фестивале «Край света» в 2016 году. В 2017 машина побывала уже в 13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острова, добравшись д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м году география поездок расширится – передвижной кинотеатр впервые посетит села Онор и Побед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помним,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культурных благ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атеги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утвержденной федер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 Ко Дню Победы ежегодная выплата «Детям вой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т 5 тысяч рублей

С инициативой увеличить ее в два раза выступ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предлож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о том, чтобы внести поправки в островной бюджет, касающиеся роста расходов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более чем на 6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73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относящимся к категории «Дети войны» (родившимся в период с 22 июня 1923 года по 3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предложено выплатить вдвое большие суммы – по 5 тысяч рублей вместо 2,5 тысяч. Эта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будет оказана 24300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Традиционно ежегодные выплаты к празднику в размере 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ветераны. Участникам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жителям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и бывши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 узникам фашизма перечислят п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этих категорий, по расчет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т 1468.

Ожидается, что инициатива об увеличении бюджетных расходов на ежегодные выплаты ко Дню Победы в виде ее высокой социальной значимости будет приня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ой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при этом внесут необходимые поправки, зарезервировав на эти це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6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выплаты к празднику получат более 2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отклонены заявк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мигрантов

Островным компаниям было отказано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1239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Такое решение накануне приняла област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котора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просы привлечени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зят курс на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занятых в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е. Введ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о хлеба и кондитерских изделий, работа на автостоянках, в автобусном транспорте и такси, а также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торговл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зультат –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анных сферах увеличилось на 34 процента.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занятых в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е, напротив,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лась и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0 процентов.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рассмотрела 16 заявок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ни касались увеличения в 2018 году квоты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з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Зарубежья на 1290 человек.

Ряд заявок был отклонен в виду возможности замещения мигрантов сахалинскими трудовыми ресурсами.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одобрено привлечение лишь 51 иностра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для четырех сахал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ваться работой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Это наша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Поэтому мы продолжим реализацию политики по снижению дол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в экономике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апомни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вот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ежегодно сокращается. Так, на 2018 год она составляет всего 1176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что на 60 процентов меньше, чем в 2017 году и на 78 процентов – чем в 2016.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областной субботник

Тысячи неравнодушны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21 апреля вышли на уборку улиц и дворов от мусора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зимы. На юге острова проведение субботника не помешало даже дождю. В одном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 Холмске –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Уже утром холмчане начали стягиваться к местам массовой уборки. Коммунальные службы и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обеспечили всех желающих инвентарем. Горожане охотно разбегались грабли и лопаты, перчатки и вместительные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мешки для мусора.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ввязались за активную уборку Пионерского бульвара и прилегающего к нему сквера – здесь в будущем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Сгребая бытовые отходы, убираем ветки и различный мусор. Нечего дома сидеть, работаем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несмотря на ненастную погоду. Нам очень хочется, чтобы дворы и места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были чистыми, поэтому приветствуем сегодняш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организовала мест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 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микро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Удалова.

– Лично у меня сегодня настрой позитивный. Это наша земля и, думаю, все жители, а не только коммунальщики, ответственны за то, как выглядит город.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всем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аких субботниках, тогда наш остров станет по-настоящему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 – высказал мнение еще один участник мероприятия Олег Соколов.

Прошлогодняя растительность – от листвы до поваленных деревьев, различные бытовые отходы, оставленные зимой, – все это сначала сгребалось в большие кучи, затем подбиралось фронтальным погрузчиком. За два часа с площадки вывезли несколько «КАМАЗов» мусора. Всего же по городу в этот день работало 12 единиц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сообщил глава холм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ндрей Сухомесов. Уборка прошла на улицах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Школьная, Победы, 60 лет Октября, Первомайская и Молодежная.

## Новое студенческое общежитие на 150 мест открылось в Холмске

Современное четырехэтажное жилое здание для учащихся получил в свое распоряж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отрасл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ервиса,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аж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ъект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о выделено более 15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новом студенческом общежитии – 150 мест,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мфорт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всех помещений – более 3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здании есть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для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тудентов и компьютерный класс – дл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кроме того – веранда, комнаты отдыха, медицинский и процедурный кабинеты, бытовые комнаты для стирки и глажки одежды. Жилые секции – квартирнотипа с туалетными комнатами и душевыми,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имеют даже застекленные лоджии. На каждом этаже есть полностью оборудованные кухни.

Ранее, в течение более 20 лет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техникума, его общежитие располагалось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здании. Ветхий корпус 1953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не выдерживал критики, вспоминает директор учреждения Дмитрий Мартынов. В стесненных условиях там удавалось разместить всего 30 студентов. Еще столько же учащихся жили в арендованном общежит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рского колледжа.

– Сегодня у нас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Открытие этого прекрасного 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жития – пожалуй, одно из самых ярких событий за всю историю техникума, – поделился Дмитрий Мартынов. – В нашем учреждении уже создана прекрасна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и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ая база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высококласс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ткрыты новейш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астерские, оборудованы компьютерные классы и лаборатории, установлены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роекторы, тренажеры и стимуляторы. К услугам студентов – соврем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читальный зал с богатым книжным фондом и выходом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ети. Условия обучения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ы к реальны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И вот теперь появилось полноценное общежитие. С его вводом полностью решается проблем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приезжих студентов жильем. Теперь в холмском техникуме смогут обучаться, не испытывая прежних сложностей, ребята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новым общежитием, о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проживания можно было только мечтать.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готовиться к занятиям, держать себя в хорошей физической и умственной форме, решать различные бытовые вопросы, – да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овому социальному объекту один из учащихся, третьекурсник Эдуард Потапов.

Сегодня холмский техникум признан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в области. Он готовит кадры по 8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на рынке профессиям и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в сфере компьютерных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вароч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емонта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Студенты – постоянные участники и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ов движения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лимпиад. На дневном отделении обучаются 360 человек, на заочном – еще 150.

Всего за 24 года работы учреждение выпустило более 2,5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них 170 – с красным дипломом. Около 80 процентов выпускников успешно трудоустро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общежития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на 2013 – 2020 годы, утвержденной федер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ткрывшийся сегодня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й объект позволит внедрять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едовые подходы к подготовке рабочих и инженеров, что, по мн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факторов дл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рыва,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и реальных доходов гражд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 5)

Поэтому США реаль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именно в контролируемом хаосе, в контролируем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у границ Китая 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в том, чтобы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шли к мирному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ю окончательно и бесповоротно.

Главная же задача России в том, чтобы в регионе сохранялись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аже если нормализует отношения с США, не станет проамериканской и н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для нас угрозы. Конечно, наша возможность влиять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слабнет, но мы и имевшимися до сих пор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е слишком активно пользовались.

Существует од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Американцы, если речь все же пойдет об окончательном мирном ре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будут стремиться оставить в процессе обсуждения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только Южную Корею, Северную и, скрепя сердце, Китай, поскольку тот является подписантом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ибо китайские добровольцы воева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это оставит Россию и Японию за бортом обсуждения важнейшего вопрос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Конечно, американцы так или иначе будут держать Японию в курсе происходящего и учитывать ее озабоченности, а Россия может просто оказаться на обочине, чему Вашингтон будет рад.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наши усилия должны быть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том, чтоб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 Китаем (с нашими более дружестве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исключения России из обсу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в будущем.

**Андрей Ланьков** — историк, кореевед, преподаватель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г. Сеул):

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является, по су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цель которого создать благоприятную атмосферу дл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намечен на май или июнь. На встрече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будет, скорее всего, достигнут какой-то значимый компромисс по ядерному вопросу. Сейчас в таком компромиссе рав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и в Сеуле, и в Пхеньяне, потому что альтернативой ему может стать американск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и, вслед за ней, полномасштабная война. Поэтому и Сеул, и Пхеньян хотят создать у мира, и, в особенности, у США,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КНДР готова к переговорам и компромиссам.

Однако, реальных решений от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ждат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Никак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инвестициям и торговле невозможны, так как они почти наверняка будут нарушением действующих санк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их нынешнем варианте, который вступил в силу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эти санкции фактически запрещают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чти всю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Так что вопрос о санкциях, если и будет затронут во время саммита, то лишь на уровне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 у Южной Кореи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влиять на позицию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 что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все равно придется с Трампом.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и, шире говоря, военные вопросы, также вне компетенции Сеула — о них имеет смысл говорить только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это тоже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поэтому мало кто ждет прорывов — они невозможны в силу упомянутых выше ограничений. Само мероприятие очень похоже на то, что на жаргоне эстрадных деятелей именуется «разогревом», то есть выступлением менее извест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перед тем, как на сцене по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е звезды концерта.

Поэтому саммит будет отмечен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заявлениями символическо-ритор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и самыми раз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призванными отметить дружбу и любовь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Могут прозвучать официальные заявления о прекращении состояния войны (значит реально мало, но звучит хорошо),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ойдут встречи членов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и, конечно, прочие концерты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сни и пляски. Возможны некоторые сдвиги с туризмом — единственной областью, в которой можно что-то предпринять, не нарушая санкций.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 участ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гроков в этом саммите, наиболее очевиден интерес к нему со стороны США — по уже названным причинам. Китай маячит на горизонте, и всем понятно, что он своими действиями (или бездействием) может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ить расклад. Япония и Россия пока заметной роли не играют. Ситуация с Россией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конечно, если Ким Чон Ын решит задействовать ее в качестве противовеса американскому давлению. Однако вероятность такого поворота событий сейчас не очень велика, да и польза для России от излишнего активизм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стается сомнительной.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чебно-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при МГУ:

Для Севера саммит — возможность улучшить сво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им — рациональный политик, и, хотя он готов к войне, начинать ее самому — не в его планах. Для Юга — это шанс взвинтить рейтинг

##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юрпризов не ждем

перед очень важными для Мун выборами в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13 июня, к которым будет приурочен референдум об изменении Конституции.

У меня нет ощущения, что обе стороны ждут прорыва, хотя любой итог саммита будет подан на Юге в духе доминирующей на сегодня там парадигмы отношения к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Сеул — это главный информатор, посредник и советчик Вашингтона о положении дел на Севере. Тот, без кого Америка никак не сможе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КНДР. Именно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позиционируется как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ступень для тройственного саммита США, Севера и Юга. Скорее всего, Север согласится с таким «раскладом», тем более, что наиболее болезненные вопросы — вроде проблем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 на саммите, вероятно, затрагиваться не будут, чтобы не портить общую благозвучную картину.

Отношение к саммиту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е. Прежде всего, саммит — ослабл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а к концу 2017 г. мое внутреннее ощущение вероятности войны поднялось до 45%. Сейчас оно снизилось, но нет уверенности в том, что тактическое потепление превратится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Даже временное потепление лучше, чем продолжение курса на обострение.

Кроме того, мотивы Ким Чон Ына могут быть и неверно интерпретированы. Либо санкции, наконец, прижали его, он заюлил, и теперь его надо грамотно додвигать; либо это коварный план, нацеленный на выигрыш времени и раскол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льянса. Если в оценках и подходах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возобладает любой из этих вариантов, тренд на консенсус может быть разрушен.

От самого саммита стоит ожидать много пафоса, деклараций и обещаний. На уровне документов все это может воплотиться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в протоколы о намерениях. Санк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бстановка и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зависимость РК от США никуда не деваются. Программа-минимум в том, чтобы вернуть отнош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на уровень хотя бы 2013 г. (с отводом войск из ДМЗ). А вот программа-оптимум может быть аналогична итогам соглашений 1991-1992 годов. Тогда стороны объявили об отказе от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в отношении друг друга и декларативно подтвердили стремление к миру и объединению. Сегодня к этому может добавиться пассаж про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версии — с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и условиями и поэтапно.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оптимум стороны как-то урегулируют итоги 1953 г., хотя многое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формулировок. За признание КНДР договороспособной стороной консерваторы Мун съедят, потому что территория РК согласно ее Конституции — весь полуостров. Естественно, Управление пяти провинций не расформируют, и санкции от 24 мая 2010 г., введенные после инцидента с корветом «Чхонан», не снимут.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саммиту обе стороны активн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сь со своими союзниками. Мун открыто объявляет, что это — первая ступень к трехстороннему саммиту с участием США. Однако сама по себе инициатива саммита — явно внутренняя: Ким предложил, Мун подхватил.

На самом деле куда боле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будет с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аммитом. Трамп уже говорит, что если ему что-то не понравится, он встанет и уйдет. В этом случае у Сеула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з-за того, что он ввел Вашингтон в заблуждение.

**Олег Кириянов** —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кореевед, журналист-международник, корреспон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в странах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Южная Корея надеется,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саммита прекратится действ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фактора», когда приходилось периодически напрягаться при очередном ракетном запуске или ядерном взрыве. В общем, ожидают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ях, может быть будет активизация контактов. Политики же, конечно, ожидают, что КНДР согласится на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или хотя бы как-то обозначит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о северян достоверно говорить трудно, но думаю, что Север ждет активизац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тмены санкций. С учетом заявленного на днях Ким Чон Ыном нового курса развития, где приоритетом является экономика, Пхеньяну нужны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торговля. Насколько все эти ожидания реалистичны — другой вопрос, но в целом атмосфера примерно такая.

В регионе ожидания от саммита разнятся от страны к стране. Думаю, что для Китая и России самое важное — снижени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 регионе, прекращения «работ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режиме потенциальной горячей точки. Для США и Японии приоритет — сворачи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целом, так или иначе, все в регионе ожидают, что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пособствует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сход саммита — пространство самых широких спекуляций. Думаю, Юг и Север проведут очень «теплый» и «дружественный» саммит. Могут быть символические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KINTEX, гд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ресс-центр предстояще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решения типа заявлений об окончании войны,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договорятся отвести войска от границы, активизируют переговоры, какие-то обмены (например,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Может быть Мун Чжэ Ин пригласит Ким Чон Ына в Сеул.... Но проблема с этим саммитом в друг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Мун Чжэ Ином объективно хочет и готово сближаться с Севером, но по части реальных шагов у южан руки связаны. Над КНДР висят очень серьезные санкции ООН, которые сдерживают любое мало-мальски серьез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Кроме т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га расквартированы войска США. Так что южане не могут решать что-то в одиночку, даже если пообещают это сделать. Тут важно будет смотреть на результаты другого саммита, когда Ким Чон Ын встретится (если дело все же дойдет до этого)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торой саммит более важен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х шагов. Например, те же санкции ООН без согласия США не отменить, они могут заблокировать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Поэтому, если резюмировать, будут красивые, но все же символические шаги со стороны Юга и Севера по повод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реальные дела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 Трамп и Ким.

США, конечно же, активно наблюдают и, наверняк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получают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что собираются делать южане на саммите и о чем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Китаю же, Японии и России,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досталась роль прост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огда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делать официальные заявления в стиле «мы одобряем шаги по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ладимир Хрусталёв** — эксперт по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КНДР:

Думаю, что ожидания сторон от саммита все же достаточно реалистичны и скром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и хотели бы попробовать превратить текущее снижение взаимного напряжения в новый период потепления между Кореями. Такие периоды случались в прошлом. И это уже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пределенные демонстративные попытки «не напрягать соседа» предпринимает не только Пхеньян, но и Сеул.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к предстоящему саммиту относятся с открытым одобрением и осторожным оптимизмом.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 регионе есть много подводных камн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язанных с политикой США, а во вторую — с положением Японии. И там, и там пока заявляют, что хотят безоговорочного и срочного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в обмен на достаточно туманные заверения в стиле «мы подумаем». То есть, Вашингтон и Токи, по сути, хотят немедленных и необратимых уступок в обмен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ые обещания. Однако у КНДР уже есть опыт того, как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выполняли» Рамочное соглашение 1994 г. Да и ситуация с иранской сделкой тоже у всех на виду.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купой платит дважды.

Если США будут готовы на какие-нибудь уступки (пусть порой даже формального плана), то ситуацию вполне по силам заморозить. И если в ходе этой заморозки произойдут реальные сдвиги в отношениях Вашингтона и Пхеньяна, то может быть и новой «разморозки» ядерного кризиса мы не увидим. И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КНДР сползет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внимания на те же позиции, что и военные ядерные программы Индии и Пакистана. Но это именно «если».

Первым шагом для снятия этих «если» и станет саммит Север-Юг. Он может заложить хороший фундамент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Трампом — ведь все понимают, что эта встреча в верхах во многом служит подготовкой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провозглашена какая-нибудь декларация об отношениях Севера и Юга.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аммиты лидеров КНДР и РК) традиционно заканчиваются принятием одного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добного плана.

Но загадывать что-либо конкретное пока рано. Разве только достаточно уверенно заметить, что никаких лихих историй в стиле романов Клензи и второсортных американских боевиков с интригой вокруг КНДР в связи с этим саммитом не ожидается.

(Источник: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 주민들이 박물관 전시품을 보완하고 자신들의 물품들을 기증하는 데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역사적 스포츠 기증품은 '크리스탈' 스포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세르게이 부렌코브 장관은 "사할린에서 스포츠 박물관 설립에 대해 몇 년간 제기되어왔지만 올해 들어서야 기획 실현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할린 지역은 대단한 스포츠 역사를 가지고 있고 높은 성과를 달성한 선수들도 있다. 모두가 그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시절에 받았던 상패, 물품들을 소중히 간직할 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물관 기증품들은 '크리스탈' 스포츠센터에서 매주 목요일에 접수하고 있다. 사할린주 스포츠·관광·청년정치부는 지역 주민들이 기증에 참여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 Основатели музея спорта просят экспонаты у сахалин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над созданием музея спорта. Он позволит познакомить всех желающих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а, его героями и победами. Островитяны приглаша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аполнению экспозиции музея и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Историче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инвентарь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во дворце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 О создании музея спор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говорили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о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иступили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громная спортивная история. Есть спортсмены, которые достигли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 о них должен знать каждый. Для этого будет создан музей, в котором будут бережно хранить принесенные предметы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Экспонаты для музея принимаются в ЛД "Кристалл" по четвергам. Также в сборе инвентаря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и региональным федерация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다도 체험

4월 21일 향토박물관에서 '참 다양한 다도 전통'이라는 주기적 행사가 3번째 조성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차, 차와 그 이상의 것들>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블라디미르 오브루체브 학자' 카흐친스키 향토박물관의 후원으로 '다도의 전통과 현대'라는 전람회를 소개했다.

내빈으로 초대된 아르제바이잔 교포들은 조국과 문화와 풍습에 대해 설명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다도는 카프카스식 손님 접대를 상징한다. 잠시 집을 가버어 방문해도 손님을 위해 푸짐한 다과를 대접하는데 아제르바이잔 전통에 따라 주유리가 나오기 전과 후에 꼭 두 차례 차를 대접한다. 마실 때는 방금 끓인 차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설탕을 넣지 않는다. 각설탕, 잼과 다과는 별도로 내놓는다. 차는 보통 '아르무드'라는 배 모양을 닮은 특별한 잔에 부어 따뜻하게 마시며 손가락이 데지 않도록 찻잔 받침을 이용한다.

5월 12일에 열리는 '참 다양한 다도 전통' 연계 행사로는 일본의 독특한 다도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향토박물관 측이 전했다.

##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ознакомилсь с традициями чаепития по-азербайджански

21 апреля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третье мероприятие цикла "Такие разные чайные традиции".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Всё о чае и не только. Азербайджанский чай" познакомил с выставкой "Чайная традиц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из фондов Кяхтин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 Владимира Обручева.

Приглашенные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 азербайджанская диаспора —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ей стране, культуре и обычаях.

Чаепитие в Азербайджане олицетворяет символ кавказског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вы заглянули в гости, для вас обязательно накроют богатый чайный стол. По традиции, чай в Азербайджане всегда подают два раза: до основных блюд и после. Чтобы не испортить вкус свежеприготовленного чая, в него не кладут сахар. Кусковой сахар, варенье и сладости к чаю принято подавать отдельно. Чай обычно пьют горячим из специальных стаканчиков грушевидной формы, 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ся "армуды". Чтобы чай не обжигал пальцы, используют подстаканники.

Следую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цикла "Такие разные чайные традиции" состоится 12 мая, оно познакомит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японского чаепития, сообщается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 bilet.sakh.com

# БИЛЕТЫ

## в кино

##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